

번역연구에서 그라이스 대화 격률의 유용성

조의연* · 조숙희**

(동국대-서울, 신한대)

1. 서론

현대 해석 화용론의 초석을 놓은 그라이스(Grice)(1975)의 대화 함축이론의 근간이 되는 협조 원리 및 대화 격률은 번역학 연구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 또는 응용되고 있다 (Margala 2009, 김도훈 2012). 일반적으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간문화의 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Baker 1992: 7장, Mateo 2005). 그것은 문화 간에 담화 구조 또는 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라이스의 번역 격률은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간 문화적 차이의 시각을 기반으로 하여 번역 연구에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

을 비판한 사례들을 재분석하여 그 비판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이 특히 번역 연구에서 첨가 또는 생략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협조 원리(Cooperative principle)나 추론 과정과 같이 언어 사용자들이 문화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공유하고 있는 화용 규칙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대화 격률과 같은 대화 규칙은 보편적이지 않거나 간 문화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Keenan 1976, Headland 1981). 그러나 그라이스의 함축이론이 제안될 때부터 그라이스의 협조 원리 및 대화 격률은 간 문화적 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라이스가 제시한 협조 원칙과 대화 격률은 대화자들이 따르는 행동 격률이나 사회적 요소로 그 적용은 언어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다. 일찍이 키난(Keenan) (1976)은 그라이스가 제시한 ‘요구된 만큼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대화 격률은 간 언어문화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 더 일반적인 대화 원칙을 탐구하는 민족지 학자 (ethnographers)들에게 그라이스가 제시한 (영어권 중심의) 대화 격률은 문화마다 차이를 보이는 대화 격률 연구에 출발점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편적 요소처럼 제기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백인중심주의’(anglocentricism)라는 위어즈비카(Wierzbicka) (1991: 21)의 잘못된 비판을 기반으로 마테오(Mateo 2005))는 스페인어 화자들은 영어 화자와는 다른 대화 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스페인 번역가는 “이러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Mateo 2005: 3). 이 논문에서는 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번역가가 원천 텍스트를 번역할 때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번역가는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가는 함축의미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목표 텍스트의 독자의 대화 격률에 따른 기대에 맞추어 번역을 하는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2장은 대화 격률이 제안된 배경 및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고 3장은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번역연구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에서 대화 격률이 번역연구에 유용함을 보일 것이다. 4장은 결론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2. 대화 격률과 위반 그리고 함축

그라이스는 V, ^와 같은 논리 연산자와 이에 상응하는 ‘and’ ‘or’와 같은 자연언어의 접속어와 차이는 의미 차이에 있지 아니하고 사용의 차이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논리학에서 논리 연산자들의 운용 방식과 달리 자연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이성적 존재라는 가정 하에 대화의 협조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그라이스는 제안하였다. 그 협조 원리는 아래와 같다.

Make your conversational contribution such as is required, at the stage at which it occurs by the accepted purpose or direction of the talk exchange in which you are engaged. (Grice 1975: 45)

이 협조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의 목적 또는 방향에 맞게 합당한 말을 하여야 한다는 일종의 이성적 인간으로서 따르는 행동 원칙과 같은 것이다. 그라이스는 이 협조의 원칙과 함께 대화 참여자는 4가지 대화의 격률을 기반으로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 격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QUANTITY: I.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s of the exchange).

II.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QUAL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I. 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II. 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RELATION: Be relevant.

MANNER: Be perspicuous.

1. 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2. Avoid ambiguity.

3. 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4. Be orderly.

대화에서 말하지 않은 채 전달되는 의미는 추론을 통해 청자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라이스는 대화 참여자들이 협조의 원리를 지키는 전체 하에 대화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서 말하지 않은 그러나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양의 격률이 의도적으로 위반된 사례를 통하여 이를 보기로 하자. 한 미국대학의 교수 B는 자기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하는 지원자 X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이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받고 싶은 상황이었다. 이에 B는 지원자 X를 가르친 타 대학 동료교수 A에게 이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요청하고 이에 교수 A는 자기의 예전 학생 X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써서 B에게 보내 주었다.¹⁾

Dear Sir, Mr. X/s command of English is excellent, and his attendance at tutorials has been regular. Yours, etc.

A는 B의 요청에 응했기 때문에 협조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나 위의 내용은 대학 교수직에 추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은 양의 정보임을 A는 알고 있으며 또한 A는 B가 이를 인지할 것으로 믿는다. 즉 A는 추천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보적이 되도록 하시오’라는 첫 번째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이 또한 B가 인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A는 자기의 예전 학생 X에 대해 위의 내용 외에 더 추천할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였으며 B가 이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믿는다. 즉, A는 정보의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지원자 X는 지원한 교수직에 자격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도 함축하고 있으며 청자 B는 A가 의도한 이 함축의미를 산정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협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성적 존재로서 대화 참여자가 지켜야 하는 대화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이를 또한 상대 대화 참여자가 인지할 때 말하지 않고 함축하는 의미가 발생하고 청자는 이를 산정해 낸다는 것이다. 협조의 원칙이 준수되고 대화 격률의 의도적 위반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화자는 p를 발화함으로써 q를 함축하고 화자는 청자 또한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청자가 화자가 의도한 함축 의미 q를 산정해낼 것으로 예측한다.

1) 예시로 사용된 문장은 그라이스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발화 맥락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부가되었음을 밝힌다.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 격률은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반되고 있으며 청자는 화자의 이 의도적 위반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함축 이론의 근간으로 제시된 대화 격률은 그러나 그 정의가 모호하거나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비판되어왔다.²⁾ 그리고 그 비판은 번역연구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는 다음 3절에서 이러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3. 번역연구와 대화 격률

3.1 대화 격률의 애매함과 번역

베이커는(1992)는 스퍼버와 윌슨과 같은 학자들이 제기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의 ‘애매모호’함 ‘정의의 부적합함’에 기초하여 번역에서 역시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관계의 격률인 ‘적합한 발화를 하시오’ (Be relevant)의 경우, 적합한 발화의 성격을 ‘흥미 있는’ ‘주제에 적합한’이라는 해석을 하더라도 이 자체가 ‘직관’적이며 따라서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의 격률이 번역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양의 격률과 결합시켜 논의할 것이다.

베이커는 관계의 격률이 번역에서 ‘다시쓰기’(rewriting)가 현저하게 이루어졌을 때 양의 격률과 관계하여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베이커(1992: 248)가 제시한 예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이집트 전 대통령 사다트의 피살을 다룬 책 *Autumn of Fury*는 한 유명한 이집트 언론인에 의해서 1983년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그 후 원저자는 자신의 책을 아랍어로 자가번역하였다. 저자이며 동시에 번역가의 역할을 한 모하메드 하이칼(Mahammed Heikal)은 영어 원본과 달리 아랍어 번역본에서는 아랍어권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다트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의 부상 정도며 건강 상태에 관한 기술을 매우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영어 원본에서는 한 단락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번역본에서는 넷 쪽에 걸쳐 확대되었다. 이러한 번역현상에 대해 베이커(1992: 246)

는 “번역가가 (원천 텍스트와는) 다른 독자들을 대상으로 (원천) 텍스트를 재절충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격률과 양의 격률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다트 대통령이 피살 직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그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 아랍어권의 독자들은 더 개인적인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번역가가 판단하여 관계의 격률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아랍어권 독자들에게) 정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번역가는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번역가는 양의 격률을 따른다. 즉, 번역가는 독자들이 흥미로움을 갖을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양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베이커에서 인용된 예를 보기로 하자. 사다트에 대해서 필자 하이칼은 그의 영어 원천 텍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While fully conscious of his shortcomings I hoped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office would strengthen the positive elements in his character and enable him to overcome the weak ones. The example of Truman was always present in my mind. I managed Sadat's campaign... (밑줄은 베이커의 것임.)

사다트 대통령의 단점에 대해 우려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책임감이 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투르먼 대통령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당시 미국인들은 투르먼 대통령 또한 원래 성격이 특징이 없거나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제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곤경을 투르먼이 극복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우려와 달리 잘 극복한 예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투르먼을 언급한 것이다.

원천 텍스트에서 투르먼과 관계된 이러한 함축의미를 투르먼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진 미국독자들은 이를 추론할 것이다. 그러나 투르먼에 대해 이와 같은 배경지식을 갖지 못한 아랍어권 독자들은 투르먼에 대한 함축의미를 파악할 수는 없다.

원천 텍스트에 투르먼 대통령에 함축된 이러한 의미가 아랍어권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관련(관계 격률)된 내용이라고 번역가가 판단하면 이러한 함축된

2) 비판의 주 대상은 관계의 격률로 이는 스퍼버와 윌슨(Sperber and Wilson) (1986)의 연구에서 ‘Relevance’라는 단일의 의사소통의 원리로 발전, 제시되었다.

내용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양의 격률)할 것이다. 아래에 나타난 텍스트는 아랍어 텍스트를 영어로 되돌려 번역한 것이며 이 부분 가운데 고딕체의 내용이 추가되어 번역되었다.³⁾⁴⁾

I also believe that I was not unaware of some of his shortcomings, but I imagined that the burden of office and responsibility would strengthen all the positive elements in his character and help him to overcome the areas of weakness in it. In my mind there was always the example of the American President Harry Truman, who succeeded Franklin Roosevelt towards the end of World War II. At that time - and after Roosevelt - Truman seemed a rather nondescript/bland and unknown character who could not lead the great human struggle in World War II to its desired and inevitable end. But Truman - faced with the challenge of practical experience - grew and matured and became one of the most prominent American presidents in modern times. I imagined that the same thing could happen to Sadat. I managed his campaign... (강조체는 베이커의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그 정의가 모호하거나 그 정의가 충분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번역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내용을 관계의 격률과 함께 잘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또는 번역에서 발생하는 생략을 통해 이를 그라이스의 관계 격률과 대화 격률이 번역의 생략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영어 텍스트는 원천 텍스트로 사다트 대통령의 피살을 다룬 *Autumn of Fury*에서 발췌된 것이다.⁵⁾

3) 이 텍스트는 아랍어 텍스트를 영어로 옮겨쓴 것이다(Baker 1992: 257)

4) 이 번역 예시를 논의하면서 Machali(2012: 87)는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는 두 번째 양의 격률 ‘필요 이상으로 체보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도착텍스트에서 주어진 투르만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체보적이어서 양의 격률을 위해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체보적인 정보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화 격률은 함축의미를 수반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의도적 위반’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Baker(1992: 258)에서 인용되었다.

Another example of how the President could over-reach himself in his desire to accommodate his new friends came over his offer of Nile water to Israel. After his visit to Haifa in September 1979 Sadat confided to a group of Israeli editors that he was thinking of diverting some of the Nile waters through Sinai to the Negev: "Why not? Lots of possibilities, lots of hope." Jerusalem, he said, was a city sacred to the three faiths. What could be more appropriate in the next climate of peace than to supply all the believers in Jerusalem with a new zamzam.

Footnote: he sacred well in the Haram of Mexxa whose water is drunk by pilgrims. It was by tradition opened by the Angel Gabriel to prevent Hagar and her son Isamil from dying of thirst in the desert.

영어 텍스트에 쓰인 ‘zamzam’은 영어권 독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본질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원천 텍스트에서 각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각주의 내용은 아랍어 번역텍스트에서는 생략되었다. 이렇게 생략된 정보는 아랍어 독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정보이며 필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말라는 두 번째 양의 격률에 부합하고 있다. 아울러 영어 원천 텍스트에 주어진 ‘zamzam’의 정보는 또한 아랍어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정보로 흥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합한 정보 또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라는 관계의 격률로 보았을 때 적합한 정보가 아니며 따라서 생략되어야 한다.

다음은 영한번역에서 나타난 동일한 생략의 경우의 예이다. 영어 원천텍스트에서 ‘jiggeh’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대상물이기에 부가적인 설명 ‘an open-framed backpack made of branches’이 텍스트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

ST: Ahead of him a man carried a heavy load on a jiggeh, an open-framed backpack made of branches.

Linda Sue Park (2001) *A Single shard*

TT: 저만치 앞에서는 어떤 아저씨가 지게로 무거운 짐을 저 나르고 있었다. (이상희 역)

그러나 이 부가적인 정보는 잉여적 정보로 한국어 독자들에게 흥미롭지 않은 정보이다. 즉, 지계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는 한국어 독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정보이다. 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필요 이상으로 제보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양의 격률을 준수하는 번역자는 이 필요 이상의 정보를 생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번역에서 첨가 또는 생략되는 정보가 그리스의 대화 격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대화 격률의 보편성과 번역

그리스가 제시한 대화 격률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제시되었다. 이 문제를 최초로 논의한 키난(1976)은 따라서 간 문화적 차이에 의한 담론 구조의 차이나 이야기 방식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대화 격률의 이러한 간문화적인 차이를 번역학 논의에 종합적으로 가져온 베이커(1992)는 그리스에 의해 제안된 대화 격률이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⁶⁾ 예를 들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제보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양의 격률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의 양’은 문화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베이커의 이 제안에 기초하여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은 문화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매개변수로 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의 대화 격률은 간문화적 차이에 의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자체로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⁷⁾

코이네이 그리스 화자에게 긴 담화가 필요한 만큼의 양이라면 필리핀의 한

6) 베이커는 한편 그리스 대화 격률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영어권 담화에서 양태의 격률 ‘Be brief’는 적용되지만 독일어 담화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크리네(Clyne) (1981)의 연구를 언급하고 있다. 독일어의 담화는 비선형적이며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영어 담화는 선형적이며 직접적이어서 지엽적으로 흐르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Margala(2009)는 그리스의 대화 격률은 텍스트 유형이나 문체와 같은 담화의 거시구조 단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시한 수준에서 함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7) 이러한 생각은 언어의 보편성은 매개변수를 내재하고 있다는 촘스키의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소주 민족어 두마갯의 화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는 짧은 담화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리 사냥에 대한 동일한 사건을 기술하더라도 두마갯 화자는 ‘Yesterday I shot a duck’이라고 말한다면 코이네이 그리스 화자는 ‘A few minutes after dawn, a large and beautifully plumed whit female duck flew overhead just south of my hiding place. I quickly fired two shells with number sixteen lead shot, and’라고 길게 기술할 수도 있다.⁸⁾ 따라서 번역가들은 목표 언어의 문화적 환경에서 대화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정보인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스의 양의 격률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정보의 양’은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고 이것이 문화 환경마다 달리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두마갯 언어 공동체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정보’는 결과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이네이 그리스 언어 공동체에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정보’는 시간, 장소, 과정까지 포함된 상술된 내용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양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의 대화 격률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에 또는 번역 연구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대화 격률이 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달리 해석되는 경우 그 대화 격률이 어떻게 번역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 마다가스카어 언어인 말라가시(Malagasy) 화자들에게 정보는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즉 말라가시 화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 A는 B에게 B의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 엄마가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 B는 이 정보를 영어권 문화와 달리 아래의 예에서처럼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청자가 더 질문을 하거나 추측을 하게 유도한다.⁹⁾

A: Where is your mother?

B: She is either in the house or at the market.

8) 이 ‘오리 사냥’ 이야기는 Headland(1981)의 것으로 베이커(1992:247)에서 인용된 것이다.

9) 이 예는 키난(1976)에서 사용된 예이며 키난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라가시 문화에서 새로운 정보는 중요한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쉽게 밝히려고 하지 않는 말라가시 화자들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청받을 때 자신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요청된 정보보다 덜 제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청자는 이를 알고 처음에 제공된 정보는 첫 질문에 요청된 필요한 만큼에 제공된 정보의 양으로 해석한다.

이것을 영어권 문화의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의 관점에서 보면 화자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발화는 ‘She is in the house’이다. 이와 같이 영어권 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말라가시 화자는 처음에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에 대한 해석이 간문화적인 차이로 달리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단지 영어권의 시각에서 보면 말라가시 화자가 답한 ‘She is either in the house or at the market’은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말라가시 화, 청자들에게 이는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인 것이다.

요약하면, 베이커가 말하듯, 말라가시 화자들에게는 정보가 재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보적’이라는 개념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그 정보가 재화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정보인 경우 말라가시 화자가 처음에 제공하는 필요한 만큼 제보적인 정보의 양은 ‘A or B’인 반면에 영어권 화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제보적인 정보의 양은 ‘A’인 것이다. 간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 양’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할 때, 번역가는 원천 언어와 목표 언어 양 언어문화의 화용적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에 대해 두 언어권의 화용적 해석이 다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말라가시 텍스트가 영어 목표 텍스트로 번역될 때 번역가는 말라가시 화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적인 정보는 ‘A or B’임을 알고 영어 화자들에게는 ‘A’임을 알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말라가시 대화는

A: Where is your mother?

B: She is either in the house or at the market.

영어 번역텍스트에서는 아래와 같이 번역될 것이다.

A: Where is your mother?

B: She is either in the house.

그러나 이와 같이 번역되지 아니하고 영어 목표텍스트에서 ‘She is either in the house or at the market’으로 번역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독자들은 화자가 요청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한다면 영어권 문화의 관점에서 이는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즉 독자들은 화자 B가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 화자 B가 양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들은 ‘화자 B는 청자 A에게 엄마의 위치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또는 ‘화자 B는 ‘청자A에게 엄마를 찾게 하려고 한다’와 같은 대화 함축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목표 텍스트의 번역은 원천 텍스트와는 다른 함축의미를 가진 번역이 되고 만다. 이는 번역가가 말라가시 화자들과 영어 화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에 대한 간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화용적 능력의 결여로 발생할 수 있는 번역인 것이다.

3.3 대화 격률의 응용과 번역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번역에 응용되어 번역 격률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김도훈(2012)은 번역 행위는 번역가와 목표 텍스트 독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 원칙으로 제시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번역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에 기반으로 하여 그는 ‘번역 격률’을 제안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양의 격률을 보면 아래와 같다.¹⁰⁾

10) 나머지 번역 격률은 다음과 같다:

질의 격률: 1. 출발어 저자가 말한 내용에 충실해라.

2. 도착어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마라.

관계의 격률: 1. 도착어 텍스트가 도착어 독자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양의 격률 : 1. 도착어 독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정도에 국한해 정보를 첨가하라.
2. 출발어 텍스트의 정보를 임의로 생략하지 마라.

양의 격률 1은 번역에서 첨가에 관한 격률이며 2는 생략에 관한 격률이다. 그러나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과 달리 그가 제시한 번역 격률은 “번역 실무의 지침, 더 나아가서는 번역 품질평가의 틀로 활용될 수”(김도훈 2012: 8) 있는 처방적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번역 격률은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격률이며 그라이스와의 대화 격률은 위배될 수 있는 격률이라는 데에 이 두 격률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라이스에서 제시된 대화 격률은 이성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화의 목적을 위해서 따르는 사회적 규범이지만 그가 제시한 대화 격률은 화자의 의도가 청자에게 인지되는 전제하에 의도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다. 즉, 화자는 의도적으로 대화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자신이 말하지 않고 함축되는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김도훈에서 응용된 번역 격률은 번역가가 지켜야만 하는 규칙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 양의 격률을 불필요하게 위배하면 텍스트가 지루해지거나 도착어 독자가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기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제시한 번역의 양의 격률은 위반되어서는 안 되는 준수해야 하는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가 제시한 한 예를 보기로 하자. 아래의 영어 목표 텍스트는 ‘The war was over’라는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ST: 부산으로 옮겼던 서울이 다시 돌아왔던 무렵의 일이다.

최인훈 (1960) [우상의 집]

TT: The war was over, the capital back in Seoul.

(John Holstein 역)

한마디로 김도훈(2012: 11)은 위에 첨가된 ‘The was was over’의 정보는 “도착어 독자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조사한다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인지적 맥락을 통해서 유추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첨가할 사유가

방법의 격률: 1. 출발어 저자가 출발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착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라.

없다고 말한다. 즉 위에 첨가된 ‘The war was over’는 그가 제시한 “도착어 독자가 텍스트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정도에 국한해 정보를 첨가하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 언급된 텍스트는 단편소설 우상의 집 (The House of Idols)의 첫머리에 해당된다. 이 소설을 읽는 영어권 독자마다 한국에 대한 인지적 축적물 혹은 인지적 지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배경이 되는 소설의 첫머리 시작으로 쓰인 ‘부산으로 옮겼던 서울이 다시 돌아왔던 무렵의 일이다’라는 정보는 한국인에게 “전쟁이 끝나 서울로 돌아왔던 무렵의 일이다”라는 추론을 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수도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라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어권 화자들은 이 추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번역가는 원천 텍스트의 정보를 그대로 영어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The war was over’라는 첨가된 정보가 영어권 독자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이며 관계성 높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에 첨가된 ‘The war was over’는 ‘당신이 기여하는 몫을 (대화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보적이 되라’고 하는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 1을 번역자는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화의 목적은 이 소설을 읽는 영어권 독자에게 이 소설의 배경은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소설 배경의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 첨가된 정보는 번역가가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처방적 요소로 제안된 번역 격률은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번역 현상을 살펴보게 되고 이 경우 번역가가 왜 이러한 번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번역가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번역가의 번역은 동기화된 번역으로 보고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주어진 대로 적용하여도 동기화된 이유를 밝힐 수 있음을 보았다.

4. 결론

화용론 연구에서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그 정의가 모호하거나 충분히 없다고 비판받아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베이커는 그의 대화 격률은 번역연구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논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후속연구들도 그러한 입장을 취해왔다.¹¹⁾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그라이스가 제안한 대화 격률은 번역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베이커가 문제제기한 ‘다시쓰기’로 인하여 번역에서 첨가와 생략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의 격률과 양의 격률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또한 대화 격률이 보편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권 문화와 다른 담화 방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매개변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간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간문화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필요한 만큼의 제보적인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간문화마다 다를 수 있으며 화용적 능력을 갖춘 번역가는 이러한 간문화적인 차이에 맞는 번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았다. 한편,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은 인간이 따르는 의사소통의 행위 규범으로 제안되었으며 이 대화 격률은 또한 화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위반되는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이 대화 격률에 기초하여 번역 격률을 제안하더라도 이는 위배해서는 되지 않는 처방적 성격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김도훈의 제안을 살펴보고 그러한 제안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았다. 즉 번역 격률이라는 또 다른 장치 없이 번역의 첨가현상을 그라이스 대화 격률로 설명할 수 있었다.

비록 이 연구에서 양의 격률과 관계의 격률을 중심으로 번역의 첨가와 생략현상을 살펴보았으나 특히 양태의 격률이 적용될 수 있는 번역의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참고문헌

김도훈 (2012) 「그라이스의 대화 격률을 응용한 번역 격률: 한·영 소설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 7-31.

11) 물론 이러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다. 마갈라(Margala 2009)는 대화 격률은 거시 담론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함축의미의 보존 여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의연 (2011) 「영한 번역과정에 나타난 외축의 명시화: 비대칭 ‘and’ 접속구문의 화용의미분석」, 『번역학연구』 21(2): 185-206.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Green, Georgia. (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rice,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Gutt, Ernst-August (1991)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Blackwell.

Headland, Thomas N. (1981) ‘Information Rate, Information Overload, and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 Casiguran Dumagat New Testament’, *Notes on Translation* 83: 18-27.

Heikal, Mohammed (1983) *Autumn of Fury: The Assassination of Sadat*, London: Corgi. (Arabic translation by the author, Beirut: Sharikat Al Matbuaat Liltawzeei wa alnashr, 1984).

Keenan, E. O. (1976) ‘The universality of conversational implicature’, *Language in Society* 5: 67-80.

Margala, Miriam (2009) ‘Grice in translation: The case of Hrabal’, *Journal of Language and Translation* 10(2): 87-128.

Mateo, Jose (2005) ‘Adjusting Grice’s maxims to the translation of English into Spanish’, in J. Mateo and F. Yus (eds.) *A Homage to Brian Hughes. Essays In Memoriam*, 223-242.

Sperber, Dan and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asil Blackwell.

Wierzbicka, A. (1991) *Cross-Cultural Pragmatics: The Semantics of Human Interaction*, New York: Mouton de Gruyter.

[Abstract]

Grice's Maxims of Conversation and their Usefulness in Translation Studies

Cho, Euiyon · Cho, Sookhee
(Dongguk Univ._Seoul · Shinhan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Grice's(1975) maxims of conversation are useful in explaining translational phenomena. The previous studies in this area have argued that Grice's maxims of conversation are not universal and therefore they could not be applied to translation studeis when the translation deals with two different discourse structures between ST and TT.

Baker(1992) extensively deals with those cases to which Grice's maxims are not easy to apply. She is very much concerned with the cases of addition and omission in translation rewriting. We have tried to show that those cases could be explained in terms of maxim of relation and maxim of quantity. If the translator find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readers then he or she could add the information as is required to meet the level of the reader's interests. For those translation problems in which there exist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interpreting 'how much is required to be informative as is required,' assuming that there exists a parametric difference between cultures in interpreting it, we have argued that the translator should be pragmatically competent enough to know whether how much is required to be informative as is required differs from ST culture to TT culture. We have used Keenan(1976) famous Malagasy example for this purpose.

▶ Keywords: Grice, maxims of conversation, maxim of quantity, maxim of relation, implicature, explicitation, universality

▶ 주제어: 그라이스의 대화격률, 양의 격률, 관계 격률, 함축, 명시, 보편성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통사론, 번역학

조숙희

신한대학교 국제어학과 부교수

shcho@shinhan.ac.kr

관심분야: 영어교육,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8년 11월 6일

심사완료일: 2018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5일